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변 미 리[†]

서울연구원

한국사회 4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 서울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24.4%에 달한다. 1인가구라 불리는 이들의 비율은 20년 전에는 9%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 전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가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진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23.5%로 줄었다. 대도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2인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발생한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등에 기인한 비(非)자발전 독신층 증가,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1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야기할 사회문제도 상이하다. 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골드족을 제외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젊은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고령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주제어 : 1인가구, 서울, 골드족, 불안한 독신자그룹, 실버 그룹, 고립, 빈곤

[†] 교신저자 :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E-mail : miree21@si.re.kr

서론

대도시 서울의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인가구로 통칭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등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관의 변화에 따른 비혼, 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한 기리기 가족의 증가, 이혼, 별거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해체된 가족들,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¹⁾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총 가구 증가율은 11%이지만, 이 중 1인가구의 증가는 무려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무려 5배 가량 증가하여 2010년 센서스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1인가구의 증가는 대도시 서울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은 총 가구수는 2010년 기준 총 3백오십여만 가구로 2000년 기준 3백팔만여 가구에 비해 14% 가

량 증가하였으나, 서울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2010년 기준 85만여가구로 10년전 50만 가구에 비해 거의 70%가량 증가하는 급속한 증가속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의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가구당 평균인구수는 1960년대 3.76명이던 것이 1970년대 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02년 대비 2007년의 가구(세대)당 인구수가 10%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가구당 평균인구수의 감소에는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인가구의 증가세는 혼인율의 감소,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자발적 1인가구), 이혼,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교육경쟁과 치열한 노동시장의 경쟁구조는 교육과 취업의 기획가 집중된 대도시로의 흡인기제를 유지해 줌으로써 여전히 원 가족과 떨어져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청년세대 역시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세는 두드러질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징과 형성요인, 그리고 그들의 가치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향후 서울의 도시사회문제와 도시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1인가구의 증가는 서울의 도시사회구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4인 가구 기준의 도시계획, 도시정책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방향정립이

1)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싱글족이 늘고 있고 특히 20~30대 독신여성이 문화와 소비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며 싱글 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하였다. ‘혼자사는 사람’이 더 이상 특별한 삶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독신가구는 1960년 전체의 13%였던 것이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2배인 26%로 늘어났다. 뉴욕 일대에 사는 남녀 싱글만 3백만 명이다. 일본사회에서도 싱글의 증가는 예외가 아닌데 20대의 남녀 중 74%가 여성들이 싱글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응답해, 30대의 66%, 40대의 58%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젊은 층일수록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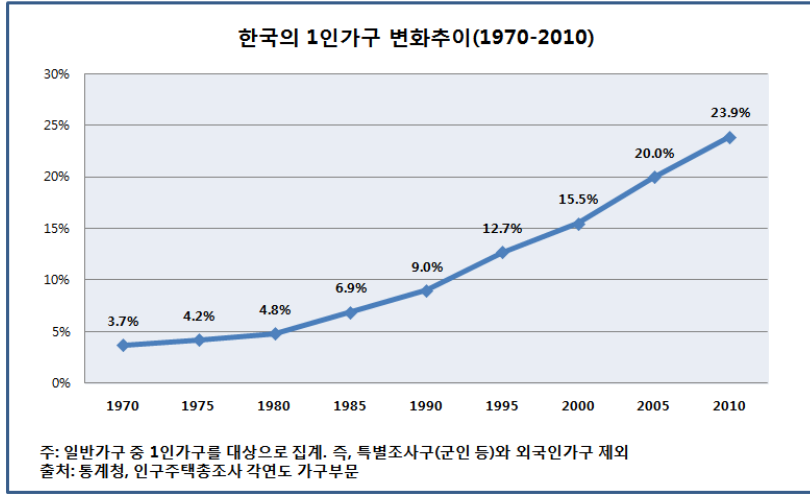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1인가구

표 1. 서울시 세대, 가구의 변화 (단위: 세대, 가구, %, 천가구, 명)

	세대수	가구수 ¹⁾	1인가구 ¹⁾	1인가구 비중 ¹⁾	주택수 ²⁾	인구수
2010년	4,224,181	3,504,297	854,606	24.4%	2,525	10,312,545
2005년	3,871,024	3,309,890	675,739	20.4%	2,322	10,297,004
2000년	3,540,492	3,085,936	502,245	16.3%	1,973	10,373,234

주: 1) 일반가구 대상

2) 주택 수 : 기존 개념의 주택 수(빈집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가구부문_전수조사 결과

필요한 것이다. 즉, 새로운 주거공간 수요증대, 싱글산업의 성장, 온라인 중심의 신(新)사회관계망, 가족관계와 가족가치 변화, 소비양식의 변화, 행복지수 등이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사회구조의 변화 양상들이다.

이 글에서는 싱글족, 고령 싱글족, 돌아온 싱글족 등으로 통칭되는 서울의 1인가구의 특성을 특정 코호트 또는 집단별로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점증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가설에 근거한 논증을 시도하기

보다는 대도시 1인가구 현상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1인가구 현상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인구·사회적 현상이란 점을 고려하여 ‘1인가구 부상’이라는 주제는 논쟁적인 이슈보다는 최근 동향에 대한 세밀한 현황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2장에서는 1인가구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리뷰하고, 3장에서는 서울 1인가구의 공간적,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분석한다. 4장에서 이러한 1인 가구 증가가 야기할 도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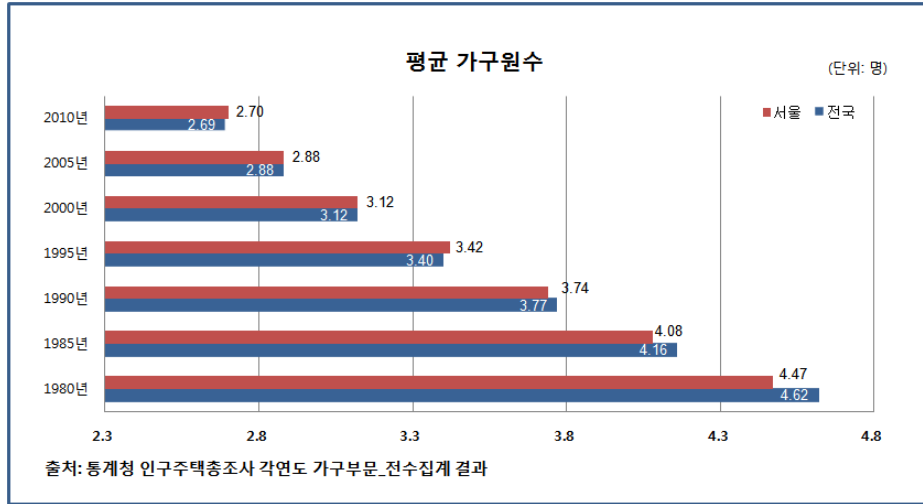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평균가구원 수

에서의 정책 및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할 것이다.

이론적 논의

1인가구의 개념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1인가구의 표준정의에 따르면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²⁾). 반면 독신가구란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

로서,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한편, 단독가구란 1인 혹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처녀, 혹은 총각 한명이 집에서 독립해 나와서 혼자 살면서 한 가구를 형성한 미혼단독가구나 노인 한분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부부단독가구 등이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독신가구, 단독가구, 1인가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유영주 외, 2000; 차경욱, 2006).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목적에 따라 1인가구와 단독가구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왔는데,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단독가구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1인가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변미리 외, 200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인가구에 대한 구분은 연구자의 연구대상에 따라 일부는 제한

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6/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null&keyWord=0&cd=L004

표 2. 1인가구 개념

저자	연도	1인가구 지칭용어	1인가구 개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김명규	1998	단독가구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김행신 · 이영호	1998	단독가구	노인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여윤경 · 양세정	2001	1인가구, 단독가구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박은아	2004	(노인)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 가구 또는 부부(노부부)가구
통계청	2005	1인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차경옥	2006	1인가구	성인한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비혼)1인가구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재 생활하는 가구
중앙일보	2008.9.9	1인가구	한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보다 넓은 의미다.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 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이혼 전 단계로 별거를 선택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와 기러기 가족, 주말부부 등 가족 구성원과 별거로 혼자 하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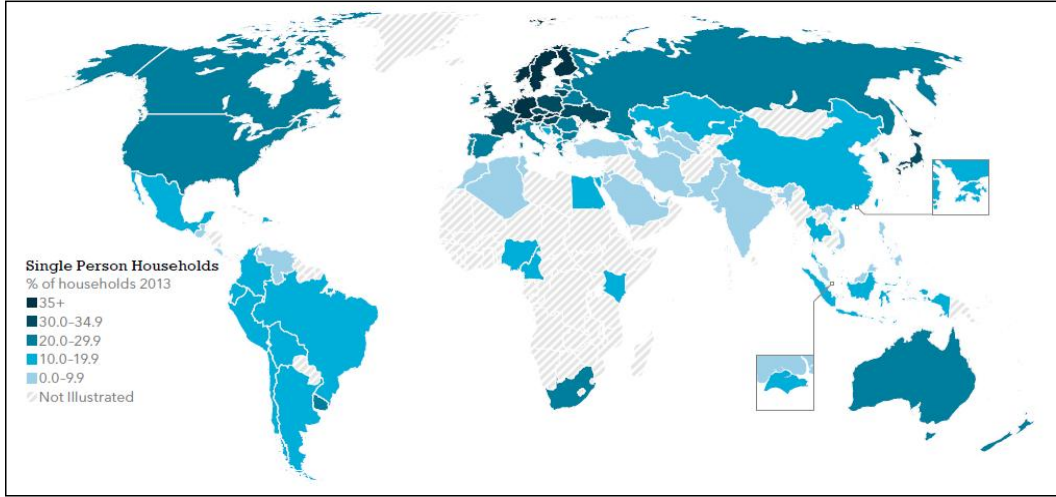
출처: 변미리 외, 2008

적으로, 일부는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사실 1인가구는 형성특성과 대상범위를 고려할 때 특정 인구 코호트에 따라 상호 배제적이라기 보다는 중첩적이다. 1인가구를 둘러싼 다양한 정의를 검토 한 후 이 글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는 통계청의 1인가구 개념을 따르기로 하였다. 즉, 서울의 1인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서울의

1인가구의 특성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면서도 반드시 비혼가구만은 아닌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세계 대도시 1인가구에 관한 연구

세계 여러 나라와 대도시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구 국가·도시들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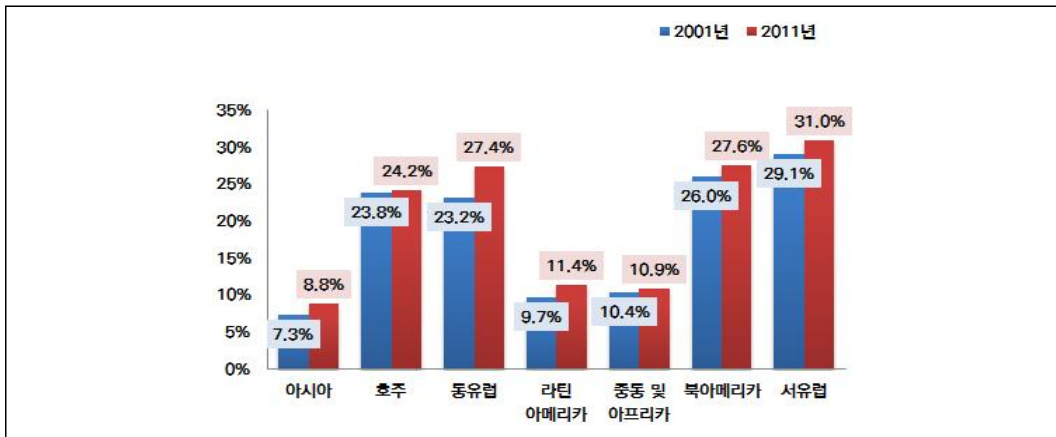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4

그림 3. 전세계의 1인가구 비율(2013년)

도시화와 1인가구, 1인가구 증가현황과 원인 분석,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자본주의화의 진전과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국가 단위에서 보면 노르웨이(38.5%), 독일(37.5%), 벨기에(33.0%), 프랑스(32.6%)등 유럽국가에서의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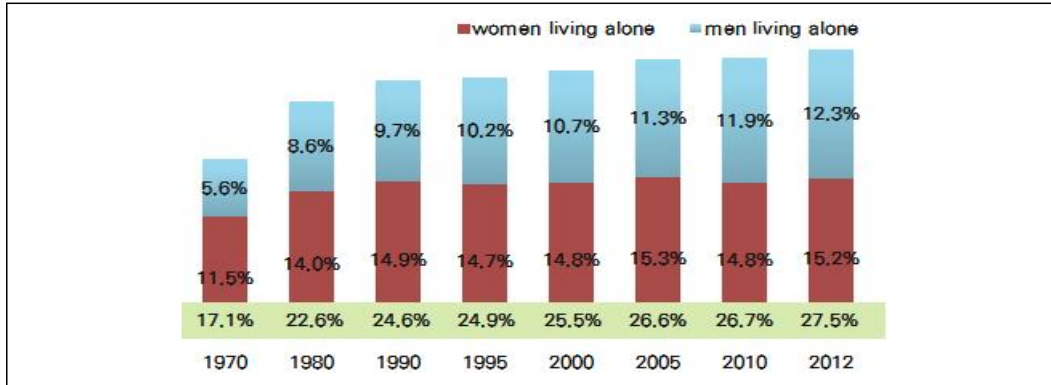
이 높고, 일본(27.5%)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보인다(EuroStar, 2014).

이러한 국가의 1인가구는 대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스웨덴의 경우 도시지역 내 아파트 주거유형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며, 프랑스의 경우 도시화 진전 정도에 따라 1인가구가 증가하였다. 파리의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2 (<http://www.cbsnews.com/news/living-alone-youre-not-the-only-one>)

그림 4. 대륙별 1인가구 비율



출처: U.S. Census Bureau, 2013

그림 5. 미국의 1인가구 변화추이(1970-2012)

경우 약 50%가 1인가구이다. 2013년 기준 1인가구는 그림 2-1과 같이 북유럽, 북아메리카, 동유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위스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EuroStat, 2014;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4).

대륙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서유럽이 31.0%로 가장 높았고, 북아메리카(27.6%), 동유럽(27.4%), 호주(24.2%) 순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2001년에 비해서는 동유럽이 4.2%p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호주는 0.4%p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유럽의 1인가구의 증가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이혼율과 별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로 인한 자발적 미혼의 증가, 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도시화와 함께 가구구성에서의 변화 역시 1인가구 형성의 큰 영향 요인이 되고 있는데 높은 이혼율과 그에 따른 편부모 가구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 비율 증가가 나타났다. 미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인가구 비율은 27.5%로 1970년

에 비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 이래로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으로 여성 1인가구는 15.2%, 남성 1인가구는 12.3%로 나타났다(Jonathan V. et al., 2013).

이러한 1인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1인가구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다. Banks 외(2009)의 연구는 다양한 국가들의 1인가구들의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을 분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인가구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현상은 노년층에서 배우자가 사별하고 자녀와 친밀한 접촉이 없이 생활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노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가구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형성 필요성을 강조한다(Banks외, 2009). 또 다른 연구들 역시 현재의 1인가구는 자발적 1인가구라기 보다는 환경에 의한 비자발적 1인가구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

다고 점을 주장한다(Lewis, 2005; Bennett and Dixon, 2006).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발적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자발적 1인가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있어 친구들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인 반면 비자발적 1인가구는 이러한 관계형성에 미흡하였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찾지 못하며,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여성의 경우보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한다(Bennett and Dixon, 2006).

1인가구 대상별, 주제별 연구

한국사회의 1인가구 연구는 가족이나 복지 영역에서 정책 대상자로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 1인가구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연구 영역이다(박은아, 2004; 김현진·김학민·안옥희, 2000; 김행신·이영호, 1998; 이영자·김태현, 199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여성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은 현실에서 여성 고령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의 열악한 경제조건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지, 주거환경, 의사소통,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1인가구 대상별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구형태가 변화되어 왔고 가구분화 현상으로 인해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유승교, 2004) 연구 등에서 1인가구 연구가 나타난다.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이동에 편승

하여 결혼 전 학업이나 직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구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배화옥, 1993)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가족과 도시화,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서 1인가구 연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외국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주택’과 ‘주거’ 분야에 연구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1인가구 연구의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한다. 2000년 이후로 1인가구가 주택과 주거분야의 새로운 정책수요자로 등장하면서 1인가구의 주택의 계획 및 수요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이지순 외, 2002; 김점호, 2004; 황미리, 2004; 주택산업연구원, 2007; 성진용, 2008). 특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이 법과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3~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 주택공급정책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서민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³⁾. 1인가구

3)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 1인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의지를 명시한 바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여성 1인가구 수는 전체 3,577, 397가구 중 45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12.6%를 차지하고 있어 10가구 중 1가구가 여성 1인가구일 정도로 혼자 생활하는 독신여성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 정책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전통적 가족제도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1인가구 싱글여성은 많은 여성정책에 있어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1인가구 싱글여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10대 핵심과제에 여성 1인가구 지원을 포함시켜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주거, 안전, 건강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지자체 최초 ‘여성 1인가구’정책수립 시동, 뉴스와이어 2012

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형임대주택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⁴⁾. 이동훈(2011)의 연구에서는 특히 대학가 인근의 대학생, 독거노인,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해서는 각 수요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연구결과로서 소형임대주택 유형을 대학가 부근 주택가에 학생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한 소규모 기숙사 형태의 대학인접형,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독립생활형, 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 데이케어 등 생활서비스와 연계된 노인복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건설자금 지원확대, 관리 지원 체계화 등을 제안하였다. 배건이·정극원(2013)은

년 6월 4일자). 먼저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만 26세 이하 서울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두 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한 공공청사를 재건축한 여성전용 안심 임대주택, 대한주변의 여대생 전용 임대주택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여 여성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신촌, 강남, 역삼 등의 주택가 골목길 조명을 2배 더 밝게 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 지원 정책으로는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내 여성 우울증을 검진하고 상담해주는 공간과 일하는 여성 위한 저녁 및 주말 프로그램 제공, 자치구 보건소의 싱글여성 특화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4) 1인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보다 1인당 필요한 주거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는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1인당 필요면적이 더 작기 때문이다 (1인가구 씬 씬이 크지만...‘솔로푸어’가 250만명, 조선비즈 2013년 1월 4일자).

직 비율이 높고, 저소득, 무주택·월세비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정책 차원에서 1인가구의 주거지원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 포괄적 개념의 1인가구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한편 최근의 1인가구 연구는 대상자별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청장년층, 전문직 등 자발적 1인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1인가구 연구는 도시화와 관련한 비교연구적 접근, 노동력 구성측면과 관련된 계층적 연구, 가구구성, 세대구성의 변화 등과 관련한 가족연구, 주거나 주택 정책 측면의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를 대상으로, 그리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2005년 인구센서스 기준 서울의 1인가구는 70만에 이르는 ‘1인가구 20% 시대’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1인가구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의 1인가구 현황에 대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계층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특성

서울 1인가구의 인구 구조

과거 20년간 서울의 1인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서울의 1인가구는 854,606 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23.9%를 차지한다. 1980년에 서울의 1인가구의 수는 82천 가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규모가 1985년에는 156천 가구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257천 가구, 1995년에는 382천 가구 등으로 크게 증가한다. 다시 2000년에는 502천 가구, 2005년에는 675

천 가구 등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해 결국 2010년에 85만여 가구가 1인가구이다. 1980년에 비해 지난 30년동안 서울의 1인가구는 10배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전국 1인가구 역시 서울과 비슷한 규모이다. 수도권의 1980년도 1인가구의 수는 38만 가구였다. 1985년에는 26만 가구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427만 가구

표 3. 서울시 일반가구 및 1인가구 변화추이

연도	일반가구수 (천가구)	1인가구수 (천가구)	1인가구 비중 (%)	평균 가구원수 (명)
1985	2,324.2	156.2	6.72	4.02
1990	2,814.8	257.4	9.14	3.69
1995	2,965.8	382.0	12.88	3.37
2000	3,085.9	502.2	16.28	3.12
2005	3,309.9	675.7	20.42	2.88
2010	3,504.3	854.6	24.39	2.70

주: 1) 1985~2010년 1인가구(10% 표본) 분석

2) 일반가구는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로서,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인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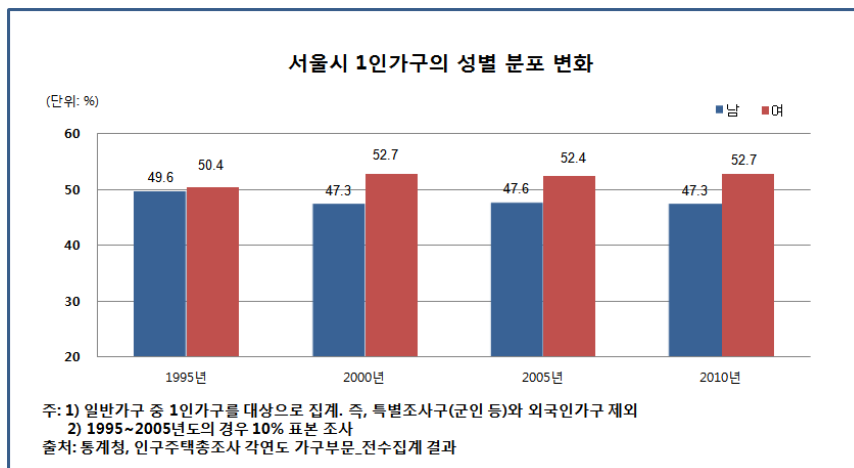


그림 6. 서울 1인가구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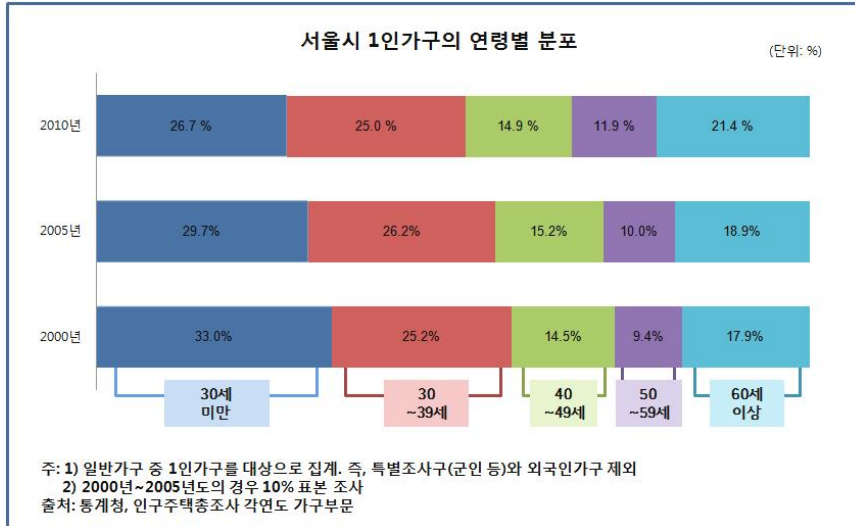


그림 7. 서울 1인가구 연령별 분포

로 증가하였다. 다시 1995년에 68만 가구, 2000년에 94만 가구, 2005년에 138만 가구, 그리고 2010년에 182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부터 2010년 까지 30년 사이에 수도권 1인가구는 13배 증가하였다. 전국의 1인가구 규모는 전체가구의 24.4%이다. 이제 서

울에서 다섯 가구 중 적어도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시대로서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가구형태가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1인가구의 형성은 서울의 최근 가구원수의 지속적 감소추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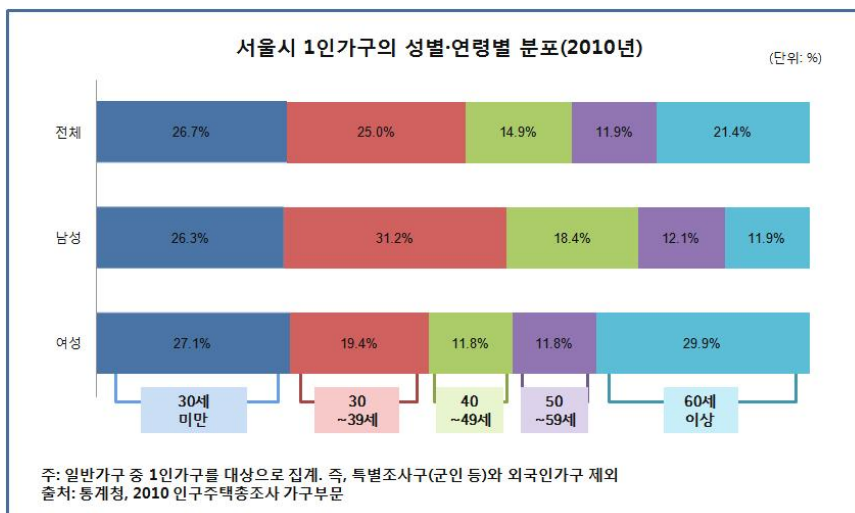


그림 8. 서울 1인가구 성별/연령별 분포

2002년 2.84명이던 서울의 가구원평균수는 2007년 2.58명으로 줄었다. 1인가구의 남녀구성비를 보면 여성의 1인가구의 증가세를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 여성 1인가구는 52.7%이고 남성은 47.3%이다. 1995년 대비 1인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1인가구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은 약간 줄어들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2000년 기준 30세 미만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의 33%를 차지했으며, 30대는 25.2%, 60세 이상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기준 1인가구의 연령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전히 30세 미만이 전체의 26.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나 그 정도는 10년동안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1인가구의 비중은 21.4%로 늘어나 고령화 현상을 1인가구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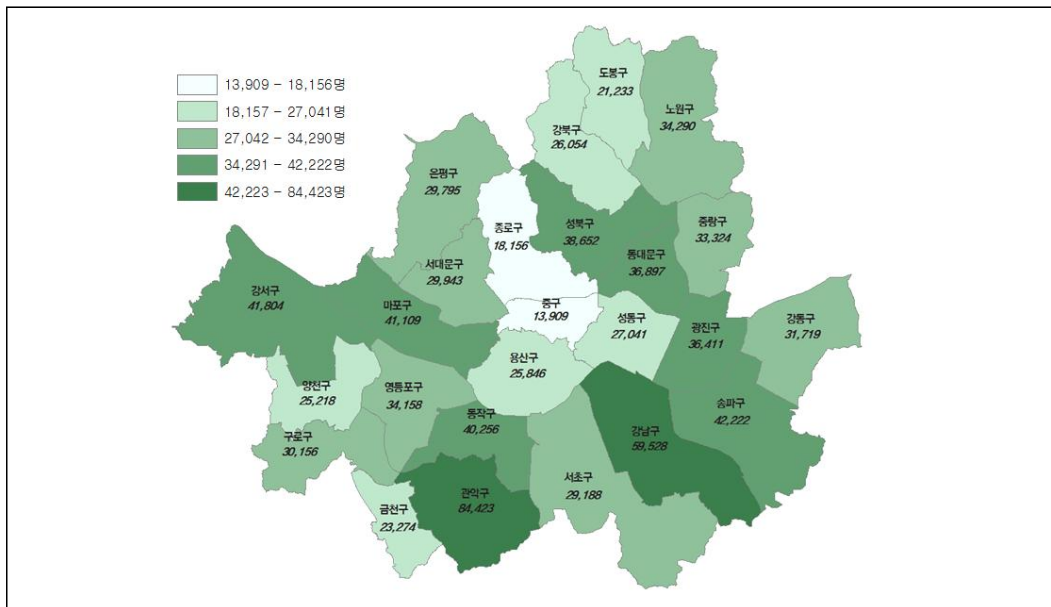
령구성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비 구성비를 함께 분석해 보면 30대와 40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1인가구는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30%), 그 다음은 30세 미만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1인가구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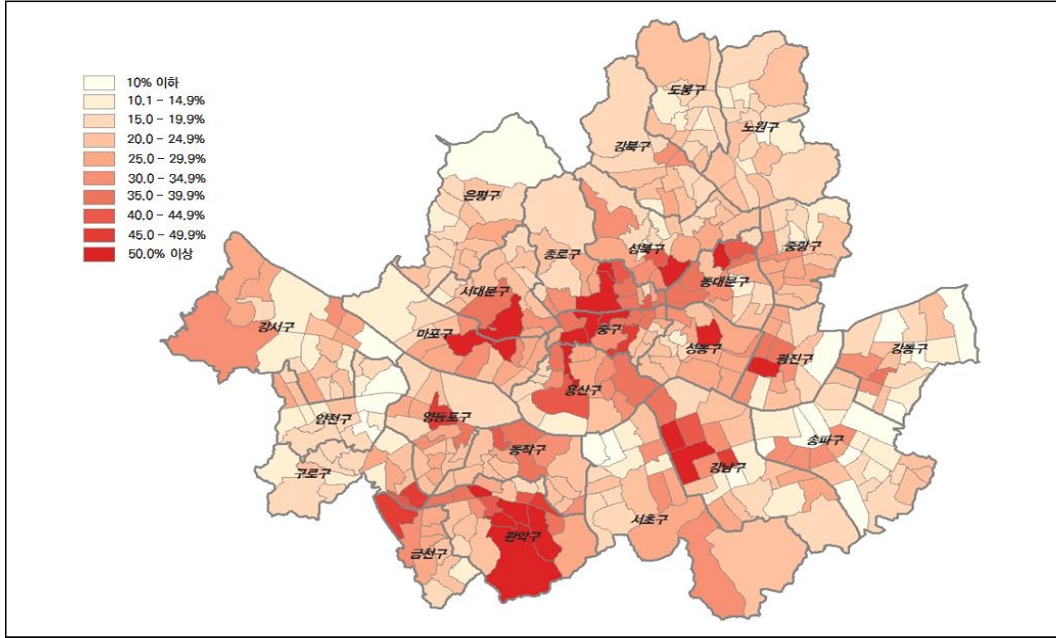
서울의 1인가구는 서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1인가구의 공간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주거정책, 교통정책, 사회적 연결망 등이 네이버후드인 지역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1인가구 공간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서울시 1인가구 공간분포의 특성은 외곽시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9.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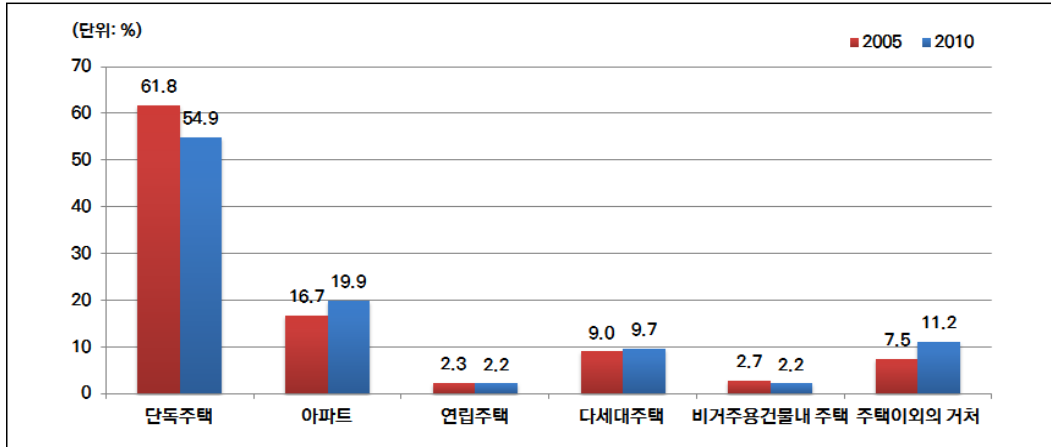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0.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_동별_1인가구 비중

역 보다는 도심지역에 몰려 거주하고 있으며, 도심 및 부도심, 역세권 등과 1인가구 공간분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종로1234가동, 을지로동, 회현동과 같은 도심지역, 노고산동과 같은 대학가 주변, 가리봉1동과 같은 공업지역 주변, 신림9동이나 신림9동과 같은 고시촌, 역삼1동이나 영등포2동과 같은 상업업무밀집지역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 1인가구의 분포를 보면, 관악구와 강남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두 지역은 성별 분포에서 대조를 보이는데, 관악구는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는데 비해 강남구는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관악구는 도심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다가구주택의 비중이 높아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젊은 독신가

구, 그리고 신림동지역을 비롯하여 대학가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집결된 고시원 등이 남성 1인가구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비싼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발달해 있고, 주로 주변의 상업업무밀집지역에 직장을 둔 독신가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분포현황은 서울시의 지하철 2호선을 근간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음을 동별 분석에서 추정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거주종류별로 살펴보면, 54.9%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 19.9%, 고시원,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택 이외의 거주 11.2%, 다세대 주택 9.7% 등의 순이다. 이러한 수치를 2005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거주 비율은 6.9%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3.2%p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원자료 분석

그림 11.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 분포 현황(2005, 2010)

표 4.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30세 미만	80.6	61.2	7.5	0.9	8.1	2.8	19.4
30~39세	86.2	52.1	18.6	1.7	11.8	1.9	13.8
40~49세	91.4	55.0	22.7	2.2	9.4	2.1	8.6
50~59세	94.2	54.4	25.4	2.9	9.2	2.2	5.8
60~69세	97.0	50.0	30.4	4.0	10.7	1.9	3.0
70세 이상	98.0	50.7	33.4	3.6	8.9	1.4	2.0
평균	88.8	54.9	19.9	2.2	9.7	2.2	11.2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의 그간 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한 단독주택의 감소와 아파트의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과 주택 이외의 거주자 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 3.7%p와 3.2%p나 증가해 서울시 1인가구의 다가구 원룸 및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대체 주택 거주비

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종류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단독주택(다가구) 거주비중이 높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일수록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의 거주비중이 높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아파트의 거주비중이 높다. 지역별로는 광진구, 중랑구,



그림 12. 1인가구 집단별 유형 및 공간분포 특성

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등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많은 지역의 1인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 거주비중이 매우 높다. 노원구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아파트 거주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1인가구의 4사4색

우리는 서울의 1인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공간적 특색 분석을 통해 서울의 1인가구는 하나의 통합된 계층이 아닌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먼저 ‘골드세대’ 그룹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심의 30, 40대들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도시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시장(market)의 포섭’ 대상이다. 지난 10년 동안(2005년 기준) 1인가구 중 전문가 집단이 2배 이상 성장(7.4%→15.9%)하였고 사무직은 15.8%(1995년)에서 20.6%(2005년)로 증가하였다. 개인주의 삶

과 사회적 성취,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관 등 사회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 성장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집단으로는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산업예비군’ 그룹, 가족해체, 중장년 실업 요인의 중첩으로 형성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과 고령화 산물인 ‘실버세대’ 등이 있는데, 사실 이들 세 집단이 1인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화려한 집단이 아닌 ‘사회적 돌봄’, ‘공공정책의 대상’ 집단이다.

대학가나 고시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중심의 ‘산업예비군’ 집단은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거나 기존의 취업 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들이다.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30대 후반과 40~50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혼자 사는 독신자들로 이혼율의 상승, 기러기 가족, 중년실업 문제가 중첩된 1인가구들이다. 이들 내부는 다른 1인가구 집단에 비해 좀 더 이질적이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전반

표 5. 서울 1인가구의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책 수요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주의 • 개성과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업종 기피 •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의 가치 담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가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족제 약화영향
경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경제 능력
사회문화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부장적 가치의 완화 • 긍정적 싱글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浮遊층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러기가족 • 이혼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사회의 중심세력

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와 불안한 직업지위로 인해 사회적 부유(浮遊)세력이 될 가능성도 큰 집단이다. 이들은 공간적으로는 종로, 을지로, 회현동 중심의 도심유형, 대학가 유형인 연희동, 신림9동 중심의 고시촌 유형, 역삼동, 논현동 중심의 역세권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령자 1인가구인 실버세대 역시 집단 내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집단인 실버세대인 1인가구들이다. 이들 집단내의 이질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독거노인으로 불리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정책적 보호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집단으로 낮은 수입, 주거의 불안정성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할 경우 가장 심각

한 위협에 노출될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직 전체적인 비중이 낮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 1인가구 집단은 사회의 새로운 수요인 실버산업의 주 대상 집단이다.

이들 네 집단의 가치관,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영향정도 등을 구분해 보면 표 5와 같다. 골드세대의 경우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지위가 집단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 산업예비군이나 불안한 독신자 그룹의 경우 실업 등 경제상황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직업관, 한국사회의 교육적, 가족적 특수성이 부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실버세대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세대이지만 오늘날 그 내

표 6. 서울 1인가구의 집단별 성장 모형

	산업예비군	골드세대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1980년 년대	맹아기	-	-	-
1990년대 초, 중반	확대시기	형성초기	형성초기	-
1990년대 후반	전반적 확산	성장	점진적 확산	맹아기
2000년 이후	지역 거점 유형	사회 트렌드화	성장	본격 형성

부의 이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서울의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이후 서울의 1인가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의 1인가구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질 수 있는 동질화된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1인가구를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빈곤화된 계층’이라는 점이다. 흔히들 1인가구가 새로운 도시문화를 선도하고 현대적 가치를 담지한 신소비계층인 ‘골드세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1인가구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이유, 실업의 문제, 가족의 해체 등 도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정책의 대상’ 집단이다.

결론: 서울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

서울 1인가구의 4種4색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

서울의 4種4색의 1인가구는 가치관,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영향 등이 상이한 서로 상이한 집단이다. 이들의 계층적 위치, 형성배경 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현재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예비군 집단들은 그 집단의 형성사를 보면 한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1980년대 맹아기를 거쳐 ‘90년대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확대하다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확산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이들은 공간분석에서 도출된 것처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유형을 보이고 있다. 한편 30, 40대와 50대 일부를 중심으로 한 불안한 독신자 그룹들은 우리사회의 가치변화와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90년대 형성이 시작되어 ‘90년대 말에 이르면 확산하게 되고, 2000년대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는 집단이다. 사무직,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골드세대들은 ‘90년대 후반 성장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오면 일종의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집단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본격적인 형성기를 맞고 있는 것이 실버세대이다(표 6 참조).

이러한 집단별 성장모형의 상이성은 1인가구 정책이 집단별 목표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의 1인가구 정책의 무게중심이 ‘빈곤의 해소’, ‘해체된 가정의 복원’ 등 사회안전망의 확장에 있어야 한다.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불안한 독신자를 위한 가족 재구성화 지원 전략, 빈곤한 실버세대를 위한 경제, 정서적 지원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골드세대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도시사회 정책 이슈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여가를 보내는 형태였다. 서울시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⁵⁾ 서울시 1인가구들은 평소 주말

5) 서울연구원의 1인가구 조사의 결과이다. 서울연구원에서는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이상 60세 미만의 1인가구 대상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추출방법은 성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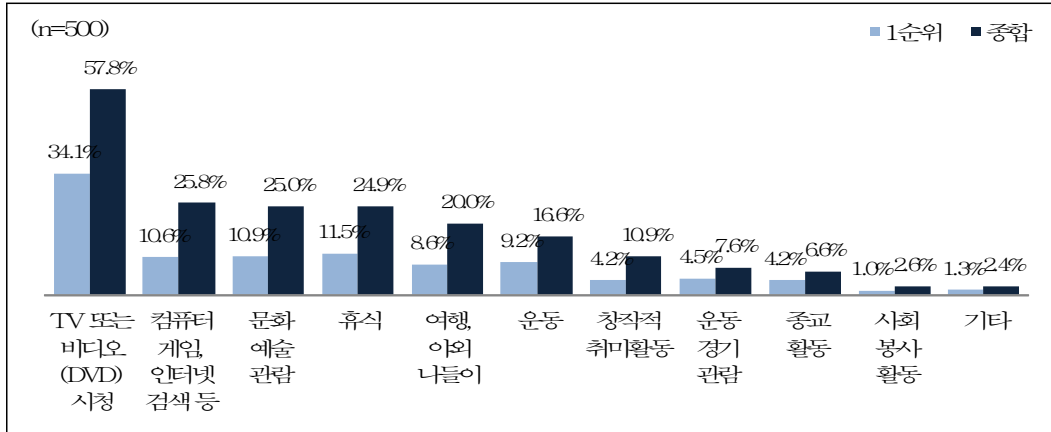


그림 13. 여가활동. 주말/공휴일에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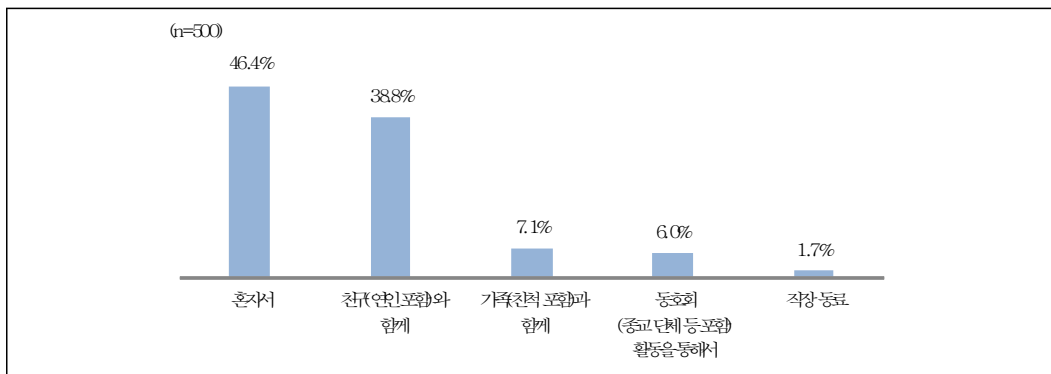


그림 14. 여가활동. 동반인

이나 휴일 등 여가 시간에 ‘TV 또는 비디오 시청’(5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25.8%), ‘문화 예술 관람’(25.0%), ‘휴식’(24.9%), ‘여행, 야외 나들이’(20.0%)가 2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1인가구는 TV,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뿐이었다.

또한 이러한 여가활동도 1인가구 10명 중 4~5명(46.4%)이 혼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한다는 응답이 38.8%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다.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경제적 측면’(6.77점)이 가장 높았으며, ‘감성적인 측면’은 6.21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 안정성’(4.59점), ‘주변의 시선’(4.38점), ‘일상생활 편의성’(4.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충 정도를 높게 느

인구비례할당을 사용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조사 시기는 2015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였다.

표 7. 혼자 사는 것의 고충

(단위: 점)

		경제	거주	감성	일상	주변		경제	거주	감성	일상	주변	
		측면	안정	측면	생활	시선		측면	안정	측면	생활	편의	측면
	전체	6.77	4.59	6.21	4.09	4.38	전체	6.77	4.59	6.21	4.09	4.38	
성별	남자	6.69	4.50	5.87	4.18	4.70	독거 기간	2년 미만	6.70	4.42	6.09	4.26	4.12
	여자	6.85	4.69	6.61	3.99	4.02		2년-5년 미만	6.45	4.73	6.35	4.43	4.86
		20대	6.86	4.51	6.65	4.01		4.17	5년 이상	6.92	4.60	6.21	3.89
연령	30대	6.60	4.70	5.98	4.07	4.56	소득	100만원 미만	7.33	4.45	6.06	3.95	4.56
	40대	6.56	4.77	6.03	4.46	5.03		101-200만원 미만	7.36	4.97	6.91	4.30	4.52
	50대	7.18	4.30	5.99	3.85	3.68		201-300만원 미만	6.78	4.55	6.03	3.81	4.31
		기혼	6.76	4.74	5.92	4.36		4.36	301-400만원 미만	6.48	4.83	5.97	4.05
결혼 상태	미혼	6.81	4.57	6.22	4.04	4.33	400만원 이상	6.11	4.12	5.85	4.22	4.06	
	이혼별거사별	6.01	4.73	6.58	4.57	5.30							

끼는 가운데, 50대(7.18점), 월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감성적 측면’은 여자(6.61점), 20대(6.65점), 월소득 101-200만원 미만(6.9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은 1인가구주(n=457)를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32.3%)

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32.2%)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서’(17.1%), ‘아직 결혼할 필요를 못느껴서’(14.3%)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인 측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인가구들의 현재 개인적인 고민거리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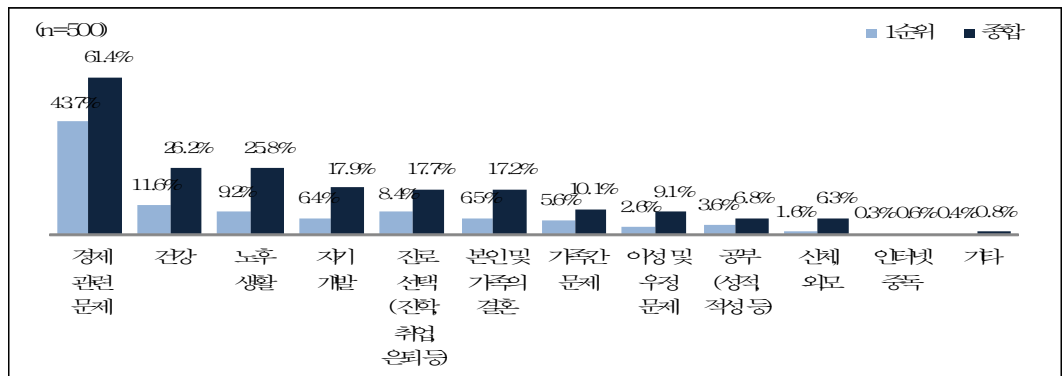


그림 15. 개인적인 고민거리

이 '경제 관련 문제'(61.4%)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건강'(26.2%), '노후 생활'(25.8%)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기 개발'(17.9%), '진로 선택'(17.7%), '본인 및 가족의 결혼'(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가족 간 문제'(10.1%), '이성 및 우정 문제'(9.1%), '공부'(6.8%), '인터넷 중독'(0.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들 집단은 스스로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독신그룹이다. 어떤 의미에서 소수자로서 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된 채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비자발적 1인가구로서의 청년, 여성, 장년층, 노인 등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함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로부터의 격리감 혹은 거리감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30대 후반, 40대 중심의 이른바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이혼, 기러기 가족 등 이른바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된다. 이들 집단은 혼자 사는 기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중된다.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전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역복지 서비스 차원의 가장 지원 서비스나 심리 상담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세대를 위해서도 경제적 지원이라는 기존의 지원 이외에도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1인가구 증가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북유럽국가들의 1인가구 비율은 거의 40%에 달하며, 미국도 35%대 이고,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다. 일본의 수도 동경의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45%에 달한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1인 가구 증가현상이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4명의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인데 사회는 이미 1,2인가구가 대세가 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다. 다양한 가구형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1인가구 문제의 핵심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자 고민할 때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 원종욱, 서문희, 강병구, 김교성, 임유경 (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 (2007). 비혼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일 (2000).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고령자 주택형태의 변화와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3), 37-50.
- 김현진, 김학민, 안옥희 (2000). 단독가구 고령자가 거주하는 독립주택의 주거환경 실측.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표논문집, 11, 91-95.
- 김행신, 이영호 (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8), 59-67.
- 권주안, 이유진, 최혜경 (2007). 1인가구 주택수

- 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 민법식 (2008).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정책과제. *대한국토*, 315, 14-20.
- 모현주 (2008). 화려한 싱글과 된장녀: 20, 2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사회연구*, 15, 41-67.
- 문형표 (2005).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한국개발연구원.
- 배화옥 (1993).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6(2), 125-139.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시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변미리 (2011).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성진용 (2008). 이제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선택할 시기다. *한국감정평가협회*, 86.
- 송유진 (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가구의 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 여운경, 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1.
- 유승엽, 이선영 (2006). 독신자를 대상으로한 광고전략: 광고소구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528-529.
- 주택산업연구원 (2007). 1인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 활성화 방안.
- 차경옥 (2006). 남성 1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69.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Berkman L and Kawachi I. (2000).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In L Berkman and I kawachi(des). *Social Epidem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Burgess A. (2005). *Fathers and public services*. In: Stanley K(ed) *Daddy dearest: active fatherhood and public policy*.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ippr).
- Byun Miree and Lee Joo Hun. (2011). *Living alone, is it unique or special? :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urban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City*. Presentation at the 41st Urban Affair Association.
- Chandler J, Williams M, Maconachie M, Collett T and Dodgeon B. (2004). Living alone: its place in household formation and chang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9)3, (www.socresonline.org.uk/9/3/chandler.html).
- Eggers, W. D. (2007). *Serving the Aging Citizen*, *Deloitte Research*.
- Family Expenditure Survey(FES). (2004). *London: TSO*.
- Gibbins C. (2004). *Family spending: a report on the 2003-04 expenditure and food survey*. London: TSO, ([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 social/Family Spending 2003-04/FamilySpending 2003-04.pdf](http://www.statistics.gov.uk/downloads/theme_social/Family Spending 2003-04/FamilySpending 2003-04.pdf)).
- House JS, Landis KR,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Jason Schnittker. (2007). Look(Closely) at All the Lonely People: Age and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Support. *Aging and Health*, 19(4),

- 659-682.
- Jim Bennett and Mike Dixon.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Lewis M. (2005). *HOME ALONE? The 2005 Unilever family repor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ipp).r).
- Maryann Wulff. (2007). Growth and Change in One Person Households: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Policy and Research* 10(4), 467-489.
- Marsella AJ. (1995). *Urbanization,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siderations*. In. T Harpham and I blue(eds). *Urbanization and mental health in developing countires*. Aldershot: Avebury.
- Miranda Lewis. (2005). *Unilever Family Report 2005*. Unilever UK.
- Ogden, P. E. & Hall, R. (2000). Households, Reurbanization and the Rise of Living Alone in the Principal French Cities, 1975-90, *Urban Studies* 37(2), 367-390.
- Stefan Buzar, Philip E.Ogden and Ray Hall. (2005). Households matter: the quiet demography of urban transform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4), 413-436.
- Judith C. Hays & Linda K. George. (2002). The Life-Course Trajectory Toward Living Alone. *Research on aging*, 24(3), 283-307.
- 東京都 (2002). *2001-2015 東京都住宅マスタープラン*.

논문 투고일 : 2015. 07. 13

1 차 심사일 : 2015. 08. 01

게재 확정일 : 2015. 08. 12

Single Person Household and Urban Policy in Seoul

Miree BYUN

The Seoul Institute

The rise of single living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demographic shifts of recent decades. The solo household is a little less than 40% in Europe areas and that of Tokyo is over 45%. Being impacted this figure, the formation of single economy is the key word in World Economic Forum(WEF) 2008. Seoul' single household is increasing rapidly. Between 2000 and 2005, the growth of single person is around 34%, the population of single person reached 700,000 people. Now 20% of total household in Seoul is Single household. Living alone or solo living is not exceptional or special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ise in single living will create pressures towards poverty and inequality and so on. Seoul should develop and prepare the urban policy for single household. We figured out the four key trends which composed of single household in Seoul. Four types of single person are like below : Gold Mr and Miss, Reserved labor forces, depressed single and silver generation. Gold group is amongst people aged 30 and 40 who is working in the area of white collar and professional. They are usually *elective* single person household who have chosen solo living. Reserved labor forces group is usually among 20s people who have not get the regular hob. For this group, job acquiring is the most important issue. Depressed single person household group is among people aged late 30s and 40s. Its group is the result from the broken family. The silver group is among aged over 65 that is the main issue of the aged society. In this research, we stressed that people living alone can be split into two types - *elective* single person households who have chosen single living, and *forced* single person household who have been constrained to this lifestyle by circumstances. Except gold group, the rest of the group is the forced single household who are faced to poverty. The monthly income of single person household is almost under 2 million won. Single person household is usually working in the blue collar job and service area. So, except gold group that is the smallest part of single person household, almost single person is not the target of private market, but the object of public policy.

Key words : Single Person Household, Isolation, Poverty, Reserved labor forces group, Depressed single person household group, Silver group